

# 설교학의 과제 : 석의와 설교의 관계\*

黄 昌 起

- 미국 Westminster 신학교(종교학 석사, 신학석사)
- 남아 Potchefstroom 대학교(신학 박사)
- 현 고신대 교수(신약학 및 설교학을 강의)

차 례

I. 서 론

1. 설교학의 기본 구조
2. 설교학의 과제의 성격
3. 설교학의 과제의 영역

1. 성경 신학의 위기

2. 석의와 설교 작성의 연결

- (1) 직관(석의의 중심 사상)
- (2) 명제(설교의 중심 사상)
- (3) 명제의 특징
- (4) 명제의 효율성

II. 본론 : 석의와 설교의

연계성 강화

III. 결 론

## I. 서 론

### 1. 설교학의 기본 구조

설교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크게 구분하면, ① 설교자 ② 설교 내용(sermon) ③ 설교 행위(preaching : delivery)로 나눌 수 있다.” 설교자는

\* 1990. 2. 5. 한국 기독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개혁주의신행협회 제 39 회 정기 총회시 특강한 내용의 일부이다.

1) 대부분의 설교학책을 보면 이 구분이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Samuel T. Logan, Jr 가 편집한 *The Preacher and Preaching*(Phillipsburg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86)에서는 제 1 부에 The man(설교자), 제 2 부에 The message(설교 내용), 제 3 부에 The manner(설교 방법)로 대별하여 다루고 있다. 또 설교 내용을 sermon, 설교 전달 행위를 preaching 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D. M. Lloyd-Jones(서문강 역) *Preaching & Preachers* (서울 :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77), pp. 49-68 참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적으로나 학적으로 준비되어 영지(靈知)가 겸비한 인격자이어야 한다. 설교학에서는 이런 설교자의 자질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설교학에서 설교 내용은 주로 '본문에서 설교까지 (from text to sermon)'를 다룬다. 따라서 본문 해석에 관한 사항들과 그것에 따른 설교 내용의 작성까지의 제반 절차를 논한다. 설교 방법에서는 설교의 전달(delivery)과 관련된 사항들 즉 음성, 태도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웅변술을 취급한다고 볼 수 있다.

## 2. 설교학의 과제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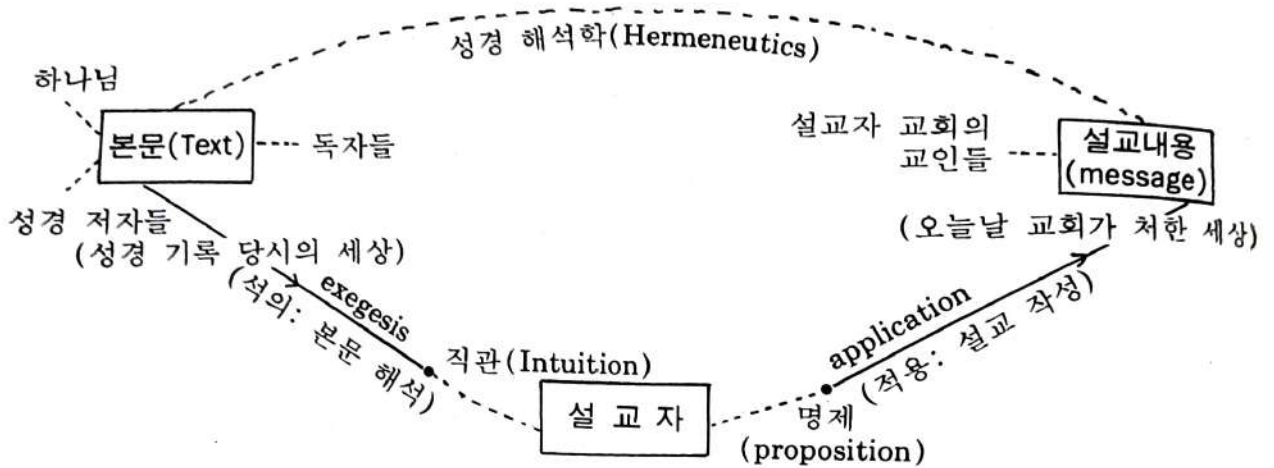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설교 내용(sermon)면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즉 설교학의 과제란 위에서 말한 모든 분야에서 다루어져야 하겠지만 우리는 설교 내용과 관련된 문제만 우선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연히 본문의 석의(exegetis)와 그 적용(application)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겠다.

설교 준비 과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으나<sup>2)</sup> 이는 사실상 성경 기록 당시에 원저자가 원독자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오늘날 교인들에게 이해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와 관련되므로 본문 관찰(observation)→해석(Interpretation)→적용(application)이라는 기본 구조가 된다. 이는 곧 성경 공부의 순서인 것이다.<sup>3)</sup>

그러나 설교의 적용면에서는 그 방법상 큰 차이가 있다. 성경 공부의 적용은 귀납적으로 성경 공부에 참석한 자의 경험을 중시하나 설교에서는 설교자의 일방적인 선포를 유일한 방법으로 한다. 즉 설교학에서 '적용'이란 설교 작성 및 전달을 말한다. 그래서 본문에서 설교 작성까지의 과정을 다음 도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John R. W. Stott, *The Art of Preaching in the Twentieth Century : Between Two Worlds* (정성구 역) (서울 : 도서출판 풍만, 1985), pp. 229-279에서 "① 본문을 선택하라. ② 본문을 묵상하라. ③ 지배적 사상을 부각시켜라. ④ 중심 사상에 맞추어 자료를 배열하라. ⑤ 서론과 결론을 첨가하라. ⑥ 설교를 작성한 후 그 메시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였으며, Sinclair B. Ferguson은 설교 준비의 기본 요소를 ① selecting(본문 선택) ② understanding(본문 이해) ③ crystallizing(주제 결정) ④ structuralizing(설교 조직) ⑤ concretizing(구체적 적용) ⑥ Delivering(설교 전달)으로 보았다(Samuel T. Logan, Jr.(eds), *op. cit.*, pp. 196-211).

3) James F. Nyquist, Jack Kuhatschek, *Leading Bible Discussions*(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85), pp. 24-35.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쓰였다. 즉 G. Ladd가 말한 바와 같이 성경은 “역사 속에서 사람의 말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sup>4)</sup>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가진 이원적 성격을 발견한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모든 시대의 모든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영속적 상관성(eternal relevance)을 가지는 동시에 성경의 각 책은 특정한 시대의 특수한 문화를 바탕으로, 일정한 언어로 쓰인 역사적 특수성(historical particularity)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원적 성격은 성경의 해석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G. D. Fee와 D. Stuart는 “성경의 영속적 상관성과 그 역사적 특수성 사이에 있는 ‘긴장(tension)’ 때문에 성경 해석이 요구된다.”고 설명한다.<sup>5)</sup>

따라서 성경 해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즉 성경 저자가 원래의 독자에게 전하고자 했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세밀하고 조직적으로 연구하는 석의(exegesis)와 그 뜻이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떠한 의의 및 중요성을 가지는가를 밝히는 적용(application)이다. 이 적용의 양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석의된 내용을 강의 형식으로 전할 수 있으며, 또 참석자들이 토론 등 경험 학습을 통해 스스로 그것을 터득하도록 하는 귀납적 성경 공부일 수도 있겠고, 나아가서 그것을 설교 조직과 선포를 통한 전달일 수도 있겠다. 여하튼 석의에서 적용까지의 제반 원리들을 해석학(hermeneutics)이라고 한다.<sup>6)</sup> 이러한 원리 절차가 이용된 설교의 본질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4) 재인용, Gordon D. Fee & Douglas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Grand Rapids : Academic Books, 1982), p. 19.

5) *Ibid.*, p. 19.

6) exegesis, exposition, application, explication, hermeneutics 등의 용어가 서로 혼동되고 있는 실정이다. A. B. Mickelsen 은 exegesis exposition 관계로 설명하고(*Interpreting the Bible*(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3),

John Stott는 다리놓기(bridge-building)<sup>7)</sup>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구도에서 볼 때, 해석학은 석의 및 적용을 위해 존재하며, 석의 및 적용은 설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해석학은 석의를 봉사하고 석의는 설교를 위하여 봉사할 때 그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설교학의 과제란 곧 본문 석의의 문제요, 이는 바로 해석학의 문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 3. 설교학의 과제의 영역

본고에서 설교학의 과제의 성격을 해석학의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분야가 포함되겠는가?

첫째, 신학 교육에서 설교학 중심의 교과 과정을 확립하여, 모든 교수·과목이 설교를 위한 강의로 그 목표를 다시 정립하고 과목 상호간의 관계가 긴밀하도록 조정 운영하는 것이다. 신학 교육에서 설교학은 만년필의 철필(또는 볼펜의 심)에 해당한다. 그 철필이 무디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설교가 바로 되지 못하는 신학 교육은 죽은 것이다.

둘째로는, 그 연계성 확립을 위한 방법론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오늘날 성경 해석에는 역사비평주의의 영향이 지나치게 크다. 신해석(New Hermeneutics)과를 비롯한 다양한 세속적 해석 이론에 대응할 만한 이론이 없다. 즉 개혁주의 및 복음주의가 건재하려면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방법론이 확립되어야 한다.

셋째, 언어학의 도움을 빌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성경 해석학의 동향<sup>8)</sup>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어의론(semantics) 등의 이론에 따른 본문 분석법을 개발해야 한다. 남아 개혁 교회는 본문 분석법이 개발, 실용화 단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앞서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분석법은 필자가 다른 곳에서 이미

pp. 55-57). 이와는 반대로 exposition-expository preaching 으로 설명하여 혼동시키고 있다(W. L. Liefeld(황창기 역), *New Testament Expositor*(Grand Rapids, Zondervan, 1984), pp. 5-7. 해석학의 임무(과제)(the task of hermeneutics)라고 말하며(P. Cotterell & M. Turner, *Linguistics & Biblical Interpretation*(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89), p. 72. 또 어떤 이들은 좁은 의미의 hermeneutics 라 하여, "지금, 여기(here and now)"에서 그 성경의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즉 application(적용)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7) John R. W. Stott(정성구 역), *op. cit.*, pp. 150-195.

8) 황창기, "최근 성경 해석학의 동향"(이근삼 박사 화갑 논문집, 고신대 출판부, 1984), pp. 371-427 참조.

언급했듯이 구조주의(structualism)<sup>9)</sup>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구조주의는 C. Levi-Strauss의 사회 인류학에 기초하여 본문에 접근하는데 그 배후에는 사신(死神) 신학이 도사리고 있다.

넷째로, 신학이 설교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분의 주권을 불오하고(infallable) 무오한(inerrant)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 즉 이 신학이 바탕이 된 해석학(hermenutics)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의 성경 연구 추세는 70년대의 성경 무오성(inerrancy)에서 80년대의 해석학으로 넘어섰다.<sup>10)</sup> 우리의 근본적 신학 입장에 굳게 서서 그 방법론의 변신을 도모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다.

## II. 본론 : 석의와 설교의 연계성 강화

### 1. 주경 신학의 위기

오늘날 신학 교육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학문 그 자체로 끝나서, 현장 목회에 크게 유익하지 못한 점이다. 이 점도 각 과목 간의 상호 유대 관계가 실용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으로 더욱 그 폐단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과목의 전문적 특성이 강조되는 만큼 상호 연관성은 희박해진다. 신학교의 모든 과목은 설교를 하기 위하여 연구되고 강의되지만, 실제 이러한 목적 지향을 위한 구체적 노력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오직 이 문제 해결은 학생들 스스로에게 방치해 둔 상태이다.

특히 석의 과목과 설교학 간에는 가장 긴밀한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과목은 성경 연구 분야와 실천 신학 분야로 각각 나뉘어 속해 있는 실정이다. 두 과목이 같은 분야에 속하지 않고 따로 나뉘어 있다는 자체가 그 연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Walter Kaiser는 이러한 양극 현상을 주경 신학의 위기(the crisis in exegetical theology)<sup>11)</sup>라 하였다. 그는 이 양극 현상을 개탄하여 “신학 연구의 전체 교과 과정 중에서 그 어떤 분야도 성경 내용

9) *Ibid.*, pp. 374-376. 그리고 P. Cotterell & M. Turner *op. cit.*, pp. 29-30 에 구조주의와 본문 분석법의 차이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10) John M. Muether, "Evangelicals and the Bible : A Bibliographical Postscript" (in H. M. Conneds. *In errancy and Hermeneutics*(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8), pp. 253-257.

11) W. C. Kaiser, *Toward an Exegetical Theology : Biblical Exegesis for Preaching and Theology*(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1), pp. 17-23.

을 기록된 그 시대, 그 정황으로 돌아가 이해하는 일과 그것을 현재 교인들이 믿음과 생명을 가진 진정한 삶을 살도록 설교하는 일 사이에 크게 벌어진 간격을 메우는 일을 맡겨 둔 것 같이 학생들에게 버려진 분야는 없다.”<sup>12)</sup>고 푸념한다. 이어서 그는 현재 영어권을 비롯하여 유럽 어느 언어권에서도 성경 본문에서 설교까지의 어려운 과정을 연결해 주려는 주경 신학(exegetical theology)에 관한 교본이나 교과서가 없다고 혹평한다.<sup>13)</sup>

그 결과는 몇 가지 극단적 현상으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 한 부류는 설교자가 본문 말씀을 읽은 후, 설교 내용은 본문과는 관계 없는 온갖 세상적-철학적, 정치, 경제, 사회적-이야기로 메우게 되어, 듣는 이의 삶과는 상관 없는 설교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의 성경 본문 기능은 비행기의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또 다른 경향은 삶에 필요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제작시의 내용과 함께 역사적, 비평적 내용까지 곁들인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비극적 양극 현상의 결과는 하나로 집약된다. 즉 이러한 강단의 빈약 내지 말씀의 기근으로 교회가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한편, 신학을 갓 졸업한 목사들을 포함하여 기성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은 각종 세미나 참가에 열을 올리며, 심지어는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조직적으로 이런 위기에 대한 대책을 스스로 강구하는 사례도 허다하다.<sup>14)</sup>

## 2. 석의와 설교의 연계성 강화

지금까지 우리는 석의와 설교 작성 사이의 제도화된 심연과 그 결과를 살펴 보았다. 그 폐단이 고질화되어 교회를 죽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정되어

12) *Ibid.*, p. 18.

13) 사실 Gordon Cornwell 신학교 구약학 교수인 D. Stuart 의 *Old Testament Exegesi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0)이 나왔으나, 서로 같은 시기에 출판한고로 Kaiser가 참고하지 못한 것 같다. 또 신약에서는 같은 학교 신약 교수 Gordon D. Fee 의 *New Testament Exegesis* 도 같은 출판사에서 1983년에 나왔다. 총신대 김의원 교수는 이 두 가지 책을 번역, 합본으로 출판하였다. 성경 해석 방법론(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7). 또 W. Kaiser 와 같은 학교인 Trinity 복음주의 신학교 신약 교수 Walter L. Liefeld 의 *New Testament Exposition : from sermon to text*(Grand Rapids : The Zondervan Corporation, 1984)를 필자가 신약을 어떻게 강해할 것인가?(서울, 두란노서원, 1987)로 번역하였다.

14) 미국에서도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각종 세미나 및 집회를 찾아 전국적으로 여행을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Walter C. Kaiser, *op. cit.*, p. 20).

야 한다. 그런데 그 구체적 방법 및 내용을 여기서는 지면 관계로 일일이 다룰 수 없다. 사실 본문 선택부터 설교 작성을 거쳐 설교 행위까지를 단계별로 구체적인 실제 수련을 쌓는 것이 신학 교육에서 필수적이다. 이런 관련 없이 그냥 설교하도록 하는 것은 수업을 이론만 가르쳐 놓고 다 했다고 하는 것이나, 자전거를 실제로 실습을 통해 가르치기보다 말로써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과정에 관해서는 따로 교본이 개발되어 설교자가 신학교 재학시 효과적 훈련을 받는 것은 물론, 일선 현장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으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지면 관계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논할 수 없으므로 다른 기회로 미룬다.

그래서 우선 이 작업의 뼈대 중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직관(intuition)과 명제(proposition)을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직관과 명제는 석의와 설교 작성 사이의 제도화된 심연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교량의 두 교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앞의 도표 참조).

### (1) 직관(석의의 중심 사상)

직관은 설교 본문을 자세히 석의한 후, 그 지배적인 사상 즉 석의의 중심 사상(exegetical idea)을 간략히 요약한 문장을 말한다.<sup>15)</sup> 직관은 본문을 몇 번 읽고서, 즉석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해석적 지식과 절차를 동원하면서, 기도와 묵상 중에 작성해 냄으로<sup>16)</sup> 직관이란 말을 영문 표기의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오해도 있을 수 있다. James Stalker는 “진리를 설교하는 데 있어서 독창성(originality)은 그 진리를 나타내는 확고한 직관(solitary intuition)에 달려 있다.”<sup>17)</sup>고 한다. 직관은 본문을 다루는 설교자가 자기의 영적, 지적 능력을 총집결하여 해석해 낸 자기만의 독특한 진술로서 이는 설교에 있어서 열쇠가 된다. Glen C. Knecht는 이 직관이야말로 설교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과 은사를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한다.<sup>18)</sup> 그런 의미에서 직관을 본문에서 독자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다면 그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한 창조적 은사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설교자는 독자적인 설교자가 되기 위하여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직관을 작성해 낼 수 있도록 자기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너무 지나쳐서 남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15) Glen. C. Knecht "Sermon Structure and Flow" In S. T. Logan(eds), *op. cit.*, pp. 280-284.

16) *Ibid.*, p. 280.

17) 재인용, *Ibid.*

18) *Ibid.*, p. 281.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의 직관을 찾아내면서 자기의 내적 주장 및 선입관이 작용하여 본문의 뜻하는 바가 조금이라도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여, 그 본문이 자기의 내적 삶에 적용되어 자기가 먼저 은혜 받은 그대로 그 확고한 직관을 파악해야 한다.<sup>19)</sup> 방금 직관을 파악하는 자세에 대하여 언급하였거니와 그 직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석의 절차의 모든 것을 동원해야 직관을 얻어 낼 수 있다.

즉 본문을 자기 스스로 번역하는 일, 단어 연구, 본문의 수사학적 특징, 사고 구조의 관찰, 관주 성경 등을 활용하여 동일 주제의 관찰<sup>20)</sup> 주석 및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 참조, 통시대적(diachronic) 및 동시대적(synchronic) 관찰, 신학적, 교리적 관찰 등등의 가능한 한 효과적인 학문적 방법을 동원하며, 동시에 그 설교를 들을 교인들의 형편을 염두에 두고 기도와 묵상의 연속적 집념 끝에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여러 활동 중에 설교자는 여러 장의 연구 카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설교에 관계가 먼 것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것들을 한 페이지의 종이 위에 자기 말로 올려 놓는다.

그리고 그 본문의 주요 요점(main point) 또는 메시지를 요약하되 하나의 서술문(a single declarative sentence)로 요약해야 한다. 이 단계 또는 바로 이전에 요약된 메시지로부터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면 그 메시지가 성경의 어느 본문에서 나온 것인지 추측해 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요약하려고 애써야 한다고 V. S. Poythress는 권고한다.<sup>21)</sup>

이 과정에서 설교자는 성경 본문의 뜻을 새겨보는 가장 깊은 묵상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조용한 오솔길을 산책하든지 밀실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서재에서 책을 펴들고 배회하든지 좌우간 그 어떤 일이나 사람에 의하여 방해 받지 않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sup>22)</sup>

직관은 본문에 쓰인 몇몇 말로써 요약되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는 G. C. Knecht 는 롬 12:14-21의 직관은 마지막 구절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가 그 직관이라<sup>23)</sup>고 한다. 직관은 많은 학적, 영적 작업의 결과이

19) *Ibid.*

20) Harold E. Monster, *Topical Index & Digest of the Bible*(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60)이나 Edward, Viening(ed) *The Zondervan Topical Bible* (Grand Rapids : Zondervan, 1969) 등이 좋음.

21) V. S. Poythress, *성경 해석학 강의안*, 1989, p. 34.2.

22) Glen C. Knecht, *op. cit.*, p. 282.

23) *Ibid.*



며, 그 본문의 진리를 해석자 자신의 말로 표현해야 한다. 또 본문의 심오한 뜻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교자는 여러 가지 질문을 자신과 하나님께 던지며 그 본문이 담고 있는 진리를 펼쳐 보이도록 위임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되 기대와 경이로운 마음으로 수행할 것이며, 본문의 직관을 도출하기 위하여 속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sup>24)</sup> “설교의 핵심은 본문이 말하는 바에 대한 설교자의 직관이다. 설교는 본문 안에서 전개되며 설교자의 내적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설교는 성경과 삶의 심층에서 나오고 그 직관은 표면에 놓여 있지 않다. 이렇게 준비한 설교는 듣는 이의 영혼 깊숙이 와 닿는다. 심오한 것은 심오함을 요구한다(Deep calls unto deep).”<sup>25)</sup> 직관은 석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요약한 그 중심 사상이다.

## (2) 명제(설교의 중심 사상)

본문에서 직관을 작성해 내는 일은 중대한 고비를 넘어서는 것이다. 문제는 이 단계 다음에 명제(proposition)의 작성이란 또 다른 고비가 있다는 것이다. 명제는 설교의 중심 사상(homiletical idea)인데 직관과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sup>26)</sup> 명제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다. Glen C. Knecht는 “명제란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통하여 교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짧은 말(brief statements)로 표현하고자 하는 설교자의 시도”<sup>27)</sup>라고 한다. John R. W. Stott는 “지배 사상(dominant) 또는 중심 사상”<sup>28)</sup>이라 하였고, L. M. Perry는 “메시지의 내용을 요약하는 분명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한 중심 사상(theme)”<sup>29)</sup>이라 하였고 Haddon W. Robinson은 이것을 설교 중심 사상(homiletical idea)라고 부르며 “성경의 뜻(개념)을 정확하게 반영하며 또 의미 깊게 교인(청중)들에게 관련짓는 성경의 의미를 전하는 진술”<sup>30)</sup>이라고 정의한다. A. Phelps는 “명제란 설교의 요지(gist)이다.”<sup>31)</sup> 하면서 “본문 속의 아이디어

24) *Ibid.*

25) *Ibid.*

26) *Ibid.*

27) *Ibid.*

28) John W. R. Stott(정성구 역), *op. cit.*, pp. 242-245.

29) Lloyd M. Perry, *A Manual for Biblical Preaching*(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65), p. 66.

30) Haddon W. Robinson, *Expository Preaching : Principles & Practice*(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Company, 1980), p. 100.

31) John A. Broadus, *O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ermons*(revised by J. B. Weatherspoon)(New York : Harper & Row, 1926), p. 56.

를 나무의 뿌리라고 한다면 명제는 설교의 본체가 나오는 나무 등치<sup>32)</sup>에다 비교하였다. C. Trimp는 명제를 “묵상” 또는 “설교학적 주석”<sup>33)</sup>이라고 한 점은 H. W. Robinson이 말한 것과 비슷하나 그 구체적인 정의나 본보기는 보여 주지 아니한다. Walter C. Kaiser는 원리화(principlization)이라고 하면서 “교회의 당면한 여러 필요에다 저자가 말하는 진리의 적용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면서 그의 주장, 논박, 설명, 실례들을 영속적인 진리(a timeless truth)로 진술하는 것”<sup>34)</sup>이라 하였다.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말한 명제에 대한 정의에서 다음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아직 그 용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둘째, 효과적인 의사 소통(communication)은 단일 중심 사상을 요한다는 수사학적(rhetoric) 차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셋째, 직관 즉 석의 중심 사상(exegetical idea)과 분명한 구별이 없게 되어 있고, 넷째, 직관에 대한 이론 정립을 지금까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에 이르게 된 듯하다. 즉 본문을 강해 설교하려면 석의의 종결로서의 직관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명제를 수사학적 동기만으로 이해한 나머지, 본문의 심오한 석의에서 비롯된 석의 중심 사상 없이, 명제 작성으로 들어감으로 본문이 설교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본문을 지배할 위험성이 클 것이다.<sup>35)</sup> 우리는 수사학(rhetoric)에서 말하는 소통(communication)의 원리 위에만 그냥 머물 수 없다. 그러다가 C. Trimp가 말하는 “처음에는 우리가 본문을 가지지만 뒤에는 본문이 우리를 가진다. 설교자는 본문을 의존한다는 것들 깨달을 때만 설교할 수 있다.”<sup>36)</sup>는 사실을 잊은 채, 성경 본문과는 거리가 먼, 따라서 교인의 실제 삶과 상관성이 희박한, 한갓 인간의 소리를 강단 위에서 떠벌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제(proposition: homiletical idea) 작성에 다시<sup>37)</sup> 박차를 가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명제는 심도 있는 본문 연구의 결과인 석의의 중심 사상, 즉 직관(intuition: exegetical idea)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욱 나아간 작업 단계이기 때문에,<sup>38)</sup> 이것이 마치

32) 재인용(John A. Broadus *Ibid.*, p. 54).

33) C. Trimp(고서회, 신득일, 한만수 공역 (설교학 강의, 서울 :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6), pp. 25-27.

34) W. C. Kaiser, *op. cit.*, p. 152. W. L. Liefeld(황창기 역), pp. 16, 134.

35) C. Trimp, *op. cit.*, p. 26 참조.

36) *Ibid.*

37) Andrew W. Blackwood, *The Preparation of Sermons*(New York : Abingdon Press, 1948), p. 121.

38) Glen C. Knecht, *op. cit.*, p. 283.

단순한 설교학의 한 지엽적인 문제를 확대시키어 19세기 말엽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sup>39)</sup> 우리는 석의와 설교 작성의 연계성 강화와 그것을 위한 효과적인 교과 과정이나 훈련 방법을 개선하면, 설교자가 명제 작성 훈련을 바로 쌓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왜냐하면 많은 탁월한 설교자들이 거의 모든 설교마다 명제를 작성하여 설교에 이용하기 때문이다.<sup>40)</sup> 더욱이 본문을 중심한 강해 설교를 위해서는 직관(석의 중심 사상)과 명제(설교 중심 사상)를 다 같이 강조해야 한다.

### (3) 명제의 특징

명제, 즉 설교 중심 사상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도 대개가 대중 연설(public speaking)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편으로서의 중심 문장이기 때문에 신학적 성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기교에 치우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제의 특징을 살필 때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명제의 많은 실제 사례를 관찰하여 명제가 지니는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귀납적 방법이기, 명제의 실례를 무작위로 수집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너무 수사학적 기교만 중시한 사례들은 제외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직관(석의 중심 사상)에서 명제(설교 중심 사상)로 발전된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 페이지의 도표와 같다.

39) Andrew W. Blackwood, *op. cit.*, p. 121 n.12 Austin Phelps 는 그의 설교학 이론서인 *The Theory of Preaching*(1881)의 1/7을 명제를 논하는 데 할애하였다.

40) *Ibid.*

저자 및 본문	직관(석의 중심 사상)	명제(설교 중심 사상)	비 고
Glen C. Knecht 롬 12:14-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21절)	성도는 사랑으로 승리함으로 모든 악을 이긴다. <sup>41)</sup>	직관이 성구 그대로 작성되면 명제는 반드시 다르게 표현한다. <sup>42)</sup>
H. W. Robinson 살전 1:2-6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에서 나온 결과 때문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증거 때문이다. <sup>43)</sup>	우리는 다른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바와 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하신 바 때문이다. <sup>44)</sup>	직관에 고유명사와 과거동사도 쓰임. 명제에 이인칭 복수 주어 현재 동사가 주로 쓰임.
H. W. Robinson 딤후 4:12-16	바울은 디모데가 그의 행실과 동기에 모범이 되고 말씀의 공적 사역에 부지런함으로 그가 젊어도 존경을 받도록 권면하였다. <sup>45)</sup>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삶과 가르침에 삼가함으로써 존경을 얻는다. <sup>46)</sup> 또는 너희들(여러분)은 너희들의 삶과 교훈을 삼가함으로써 너희들의 사역에 대한 존경을 받을 수 있다. <sup>47)</sup>	직관에 고유명사와 과거동사도 쓰임 젊은 신학생들에게 설교할 시

애석하게도 석의 중심 사상(직관)과 설교 중심 사상(명제)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는 별로 없는 편이다. 이는 곧 석의(exegesis)와 설교 작성 사이에 커다란 단절이 있어 왔다는 증거가 아닐까? 따라서 우리는 명제만의 실례 중에서 그 특징을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다 같은 본문에 대한 두 설교가의 명제를 먼저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본다.

41) Glen C. Knecht, *op. cit.*, p. 283.  
 42) *Ibid.*  
 43) Haddon W. Robinson, *op. cit.*, p. 98.  
 44) *Ibid.*  
 45) *Ibid.*  
 46) *Ibid.*  
 47) *Ibid.*

롬 6:1-14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그 분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다스리는 것에 대하여 죽었고 덕과 거룩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혹은 : 너는 과거의 너가 아니므로 네가 과거에 사는 것과 같이 살 수 없다)(H. W. Robinson). <sup>48)</sup>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삶을 끝내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최악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며, 따라서 도덕적으로 우리의 옛 생활에 대해서 죽었으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여 새로운 삶으로 부활한 자들과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 드려야 한다(W. L. Liefeld) <sup>49)</sup> .
요 3 중생에 대한 설교 중심 사상	우리 중에 가장 선한 사람일지라도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H. W. Robinson). <sup>50)</sup>
	어떠한 문화와 그 배경에 관계 없이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여 새롭게 변화 받는 체험이 필요하다(H. C. Brown; H. G. Clinard; J. J. Northcutt). <sup>51)</sup>
신 6:1-25	나라는 번영될 수 있다.(L. M. Perry) <sup>52)</sup>
엡 2:11-12	크리스마스의 승리의 메시지는 그것이 세상에 주는 소망이다. <sup>53)</sup>
삿 13:2-8	아이를 낳기까지는 각 부모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sup>54)</sup>
엡 5:25-30	남편들! 여러분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sup>55)</sup> <개인적 명제 : personalized proposition>

48) *Ibid.* "We must realize that through our union with Jesus Christ in His death and resurrection, we have died to the rule of sin and have been made alive to virtue and holiness(좀더 잘 기억할 수 있는 표현, you can't live as you once did because you are no longer the person you once were.)"

49) W. L. Liefeld(황창기), *op. cit.*, p. 222. "We should not continue living a sinful life, because just as surely as Christ ended his life on earth by death and rose to begin a new life, so, morally, we have died to our old life and should, as those raised with Christ to a new life, yield ourselves completely to God."

50) H. W. Robinson, *op. cit.*, p. 98. "Even the best of us needs to be born again"

51) H. C. Brown, Jr., H. Gordon Clinard, Jesse J. Northcutt, *Steps to the Sermon* (Nashville, Broadman Press, 1963), p. 43 "Regardless of background and culture man needs a transforming experience of renewal wrought by the Holy Spirit"

이상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명제(설교 중심 사상)의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명제는 보편적 진리를 표현함으로 직관(석의 중심 사상)과는 달리 인물, 장소, 사건 등 고유명사(‘하나님’이란 말 외에)와 역사적인 사실은 제외한다. 설교는 그것을 듣는 교인들의 현재 삶과 관련이 깊으므로 명제에는 과거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동사만 사용한다.<sup>56)</sup>

명제는 아주 분명하고 명료해야 한다. 따라서 은유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명제는 듣는 이에게 하나의 분명한 목적 및 신앙을 남겨야 함으로 간결하고 함축성 있는 문장으로 가능한 한 외우기 쉽도록 표현한다. 그러므로 단어 선택에도 엄정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즉 형용사와 부사 등의 수식어는 할 수 있는 한 줄이고 문장이 박진감 넘치도록 하는 명사와 동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명제는 할 수 있는 한 간결하고 단순하고 압축되어 짧으면 좋겠다.<sup>57)</sup> 그러나 명제가 반드시 단문이어야만 되고, 그 형식이 하나의 문법적 주어와 동사로 된 잠언이나 경구적 표현이어야만 한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명제는 압축된 설교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꼭 명심할 일은 명제가 지니는 주어는 단순한 문법적 주어(subject)가 아니라<sup>58)</sup> 중심 사상 또는 지배적 사상(theme)이라는 점이다. L. M. Perry는 ‘기도’ ‘사랑’ ‘믿음’ 등이 주제(subject)라면 ‘기도의 방법’ ‘사랑의 조건’ ‘믿음의 본질’ 등 구(phrase)로 표현되는 것이 중심 사상(theme)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명제에는 중심 사상(theme)이 표시되어야 한다는 뜻이

52) Lloyd M. Perry, *op. cit.*, p. 82. "A nation can become prosperous"

53) Gerald Kennedy "Pagans Have No Hope", *Pulpit Digest*, Vol 23(1952), p. 21  
 . 재인용(H. C. Brown Jr. H. Gordon Clinard, Jesse J. Northcutt, *op. cit.*, p. 45. "The Triumphant message of Christmas is the hope which it gives to the world"

54) Andrew W. Blackwood, *Expository Preaching for Today*(Nashville, Abingdon—Cokesbury, 1953), p. 89.

55) John F. Bettler "Application"(S. T. Logan eds, *op. cit.*). p. 342. "Husband, you must love your wives as Christ loved the church"

56) L. M. Perry, *op. cit.*, p. 66.

57) G. C. Knecht, *op. cit.*, p. 283 : H. C. Brown Jr. H. Gordon Clinard, J. J. Northcutt, *op. cit.*, p. 43.

58) H. W. Robinson, *op. cit.*, p. 39, 장두만, 강해설교 작성법(서울, 요단출판사, 1986), p. 46.

다.<sup>59)</sup> 이와는 좀 달리, H. W. Robinson 은 설교의 주제(subject)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What am I talking about)”라는 질문에 완전하고 확고한 대답”이라고 정의한다.<sup>60)</sup> 여기서 Robinson 의 subject 는 L. M. Perry 의 theme (중심 사상)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Robinson 은 시편 117 편의 주어(subject) 는 찬양도 아니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praise of God)이 아닌데, 이 표현들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 정확한 주어(subject)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Why everyone should praise the Lord)”라고 한다.<sup>61)</sup> 또 히 10:19-25 의 주어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the high priesthood of Jesus)도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력’(boldness to enter the holy place)도 아니다. 이유는 너무 막연하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대제사장이 계시니 마땅히 일어나야 할 것(What should happen since we can enter into God’s presence with confidence and have a great high priest)”이라고 한다.

즉 우리가 명제를 표현할 때, 적은 단어로 간결하게 표현하면서도 설교자가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요점은 놓치지 않고 더 중시해야 한다. 여기에 명제 작성의 어려움이 있다. 명제 작성은 쉽지 않다. 그것이 그만큼 값지고 보람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쉽게 명제를 얻지 못한다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한다. 명제 작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일수록 더 값지다고 한다. 이유는 그렇게 명제를 만든다는 그 자체가 교인을 위하여 고투하고 기도하고 사랑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sup>62)</sup>

명제의 유형이 대개 업무 강조형(obligation)으로 “……해야 한다(should)”라든가, 가능 강조형(ability)으로 “……할 수 있다(can)”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고 가치 강조형(value)으로 “…… 것이 낫다(better)”로 끝나는 것도 그 특징이라 하겠다.<sup>63)</sup>

John F. Bettler 는, 명제는 좀더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 개인적(인 삶에 적용되는) 명제(personalized proposition)가 더욱 효과적이며 왜(why), 어떻게(how), 언제(when), 어디서(when), 무엇(what)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 설교대지를 좀더 자연스럽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64)</sup>

59) L. M. Perry, *op. cit.*, pp. 65-66.

60) H. W. Robinson, pp. 39, 45.

61) *Ibid.*, pp. 41-42.

62) G. C. Knecht, *op. cit.*, p. 283.

63) L. M. Perry, *op. cit.*, pp. 66-67 참조.

64) John F. Bettler, *op. cit.*, pp. 340-341.

본문 : 살전 4:13-18

개인적 명제 : 당신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경과적 질문 : 무엇을(당신은 알아야 하는가)?

대 답 : 1.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다(14절, 16절)

2.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이다(14절, 16절).

3. 그리스도는 살아 남은 자들을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15절, 17절).<sup>65)</sup>

개인적인 명제가 명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일종의 효과적인 특징이지 모두가 다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특히 2인칭을 쓰는 문제는 한국 강단에서는 조심성 있게 써야 한다.

#### (4) 명제의 효율성

명제를 도출하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직관과 명제를 도출한다는 것은 설교자와 교인들에게 동시에 유익하다. 설교자는 설교 준비와 설교 전달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John Henry Jowett 는 다음과 같이 신학생들에게 강조하였다.

우리 설교자는 주제를 수정같이 선명하고도 의미 심장한(pregnant) 문장으로 요약하여 표현할 수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설교라도 준비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나는 그 문장 하나를 얻는 것이 고통스럽고 나의 서재에서 가장 정신이 쓰이며, 또 가장 성과 있는 작업임을 깨닫는다. 나는 구름 한 점 없는 달처럼 명백하고 선명한 그 문장이 떠오를 때까지는 어떠한 설교라도 선포되어지거나 활자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sup>66)</sup>

Jan J. van der Walt 도 이 명제를 도출하면 설교 준비는 사실상 끝났다고 까지 말하며, 만일 어떤 본문에서 명제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본문 선택이 잘못되었든지, 하나님의 계시의 초림이 아니든지, 아니면 그 본문을 아직도 잘 이해 못한 것이라고 한다.<sup>67)</sup> 즉 이 말은 설교의 중심 사상(명제)에 설교의 목적과 방향 및 구조가 암시적으로 담겨 있는 명제의 효율성을 지적한 말이다. 그가 학생들을 지도해 본 경험에 의하면, 명제를 통해서 설교

65) *Ibid.*; p. 343.

66) 재인용, Andrew W. Blackwood, *op. cit.*, pp. 121-122, John R. W. Stott(정성구역), *op. cit.*, pp. 244-245.

67) Jan J. van der Walt, *Preaching God*(Potchefstroom, 1987), p. 49.



를 작성시키면 학생들이 스스로 작성하는 습관을 기르며 남의 설교를 표절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또 이 작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설교가 단순히 이 주석, 저 주석에서 조금씩 발췌하여 모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본문 자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말씀 중심의 설교자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또 학생들은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본문과 씨름하게 되며 따라서 자신의 개인적 설교 스타일의 정착을 이룩한 기쁨을 마련한다. 이렇게 정착되어 가는 중에 학생들은 도덕주의적, 심리적, 교의적, 모범적, 정치적 설교를 피하고 말씀 제일 중심의 강해 설교를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sup>68)</sup>

명제는 설교 도중에 반드시 천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론 마지막에 언급함으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설교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또 설교의 각 대지를 말하기 전이나 후에 설교시 몇 번 천명할 수도 있다. 그것은 설교에 따라 다르다. 이와 같이 명제를 도출함으로 설교자의 준비뿐만 아니라 설교자의 설교 행위를 도와서 듣는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명제를 기억함으로 설교자의 설교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다. 명제는 설교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게 한다. 명제는 설교자의 직관(석의 중심 사상)과 설교 구조를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준다. 왜냐하면 직관과 명제를 기억함으로 설교자는 그의 설교를 질서 정연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 III. 결 론

석의와 설교 작성 사이에는 깊은 단절이 가로놓여 있다. 따라서 설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되 이것이 교회를 무기력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란 점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주경 신학(exegetical theology)의 위기로 표현하였다. 특히 이 문제가 현행 신학 교육 제도 및 교과 과정 운영면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문제 해결을 오직 신학생들에게만 맡겨져 있는 점이 더욱 문제다. 젊은 목회자가 신학교 문을 나서자마자 이 문제로 인한 방황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석의와 설교(작성)학의 연계성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신학교에서 석의 담당 교수와 설교학 교수가 같은 본문에서 설교 작성을 함께하는 강의 구조가 확립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석의와 설교 작성 사이의 심연을 매우는 작업은 여러 단계이며, 또한 다양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을 석의(exegesis)하여 그 결론의 총화인 직관(exegetical idea)을 작성하는 것과 그것을 바탕으로 설교자가

68) *Ibid.*, pp. 49-50.

봉사하는 교회의 교인을 향한 명제(proposition)-설교 중심 사상(homiletical idea)-를 작성하는 일이다. 종전에는 연설 이론에만 치중한 명제 작성을 다루었다. 따라서 석의와 설교 작성의 원만한 연결이 되지 못했다. 설교에서는 직관과 명제를 동시에 강조함으로 설교자가 오직 본문을 근거로 강해 설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작업을 성실히 하는 것은 석의와 설교 작성의 핵심 작업을 거의 다 포괄하는 격이 된다. 그러므로 모든 설교자는 이 원리에 입각하여 설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훈련을 쌓아야 할 것이다.

\* 표지 그림 감상

백조의 몸짓과 개혁 신앙자

겨울 바다에 날아온 철새 백조(고니)는, 그 고유한 흰빛을 더럽히지도 않거니와 먹이를 잡기 위해 바닷속에 몸을 잠글지라도 깃털에 베어 있는 기름기 때문에 그 깃털이 물에 젖지도 않는다. 철이 지나면 이 철새는 본 고장으로 날아가는 것이다.

개혁 신앙자는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심령 속에 지님으로써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성도의 고유한 성품인 거룩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영향을 끼치면서 점차 성화해 가다가 때가 되면 타향살이의 이 세상을 떠나 본향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 최 -

季刊 改革信仰 (The Reformed Faith)

부담없이 살 수 있고(정가 600 원),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24 쪽), 실속있는 잡지!

창간호(88. 8/1) - 제5호(89.11/1)까지의 주요 내용

논 문

- 언덕위의 도시 : 뉴 잉글랜드 청교도들의 이상 / 오덕교 교수
- 그리스도의 얼굴(초상 사용 문제) / 고주영 선교사
- 기독교와 실용주의 / 김성린 교수
- 개혁주의 신학이란? / 이근삼 교수
- 한국 교회와 개혁 신앙 / 홍치모 교수
- 출애굽 연대 문제 / 오병세 교수
- 사실과 고증(考證) / 이만열 교수
-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해석자의 위치 / 박형웅 교수
- 개혁주의 신학이 서구에 미친 영향 / 이보민 교수
- 기타 설교 및 서평 각 수 편
- 민중 신학의 '민중' 개념 평가 / 나용화 교수

정기구독안내

1년분 2,000원을 다음 온라인 중 송금하시고, 별도 연락(서신 또는 전화)을 주시면 출간시마다 우송해드립니다(날 권은 서점에서 구입 요망).  
조흥은행 : 359-6-009858 우체국 : 010033-0028944